

원희룡 “도심에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금융지원도 강화”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방문해 입주 청년들과 대화

“청년 주거지는 학교나 주차장 부담이 없으니 용적률을 올리는 등의 틈새 방법을 찾아 공급 물량이나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 영등포구의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방문해 입주자들을 만나 건의사항을 듣고 청년들을 위한 주거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원 장관이 이날 방문한 ‘아츠스테이’는 원래 숙박시설이던 건물을 리모델링해 청년·예술·창업인을 위해 공급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으로, 현재 대학생과 창업인, 예술인 등 청년 51명이 거주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7억원을 들여 매입하고, LH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회적기업 안데나가 운영하는 아츠스테이는 뛰어난 입지에도 임대료는 주변의 절반 정도인 월 37만~47만원(보증금 100만 원 별도)이어서 2021년 문을 열 당시 입주 경쟁률이 8대 1을 기록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세탁실과 회의실 등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후 특화형 청년 매입임대 주택인 서울 영등포구 아츠스테이 영등포점장을 방문, 입주 청년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용시설을 둘러본 뒤 이 건물에 거주하는 청년들과 만나 거주하면서 느낀 점과 특화형 청년주택에 관한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청년들은 원 장관에게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주거비 부담 등 고민을 토로했다.

한 거주자는 “주로 프리랜서나 소득이

일정치 않은 입주자가 많아 이곳에 사는 동안 열심히 돈을 모으려고 해도 쉽지 않다”며 거주 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청년임대주택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임대기간 종료 이후를 대비해 정부가 공급하는 다양한 공공주택에 대한 안내가 사전에 이뤄지면 좋겠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은 둘째치고 당장 내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청년들이 원하는 도심 내 우수한 위치에 다양한 시설을 갖춘 맞춤형 공공 임대주택을 충분히 제공하고,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국토부 담당자들에게 용적률 상향 등의 방법을 찾아볼 것을 주문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과거에는 공급량을 중시했지만, 이제는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형태로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며 “양보다 질에 더 중심을 두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특화형 청년주택의 임대 기간을 기존 최장 6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했다고 밝히고,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리비를 낮출 방향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 강희성 기자



2018년 전청조 씨는 제주도에서 동성과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상대 여성의 가족 측은 전 씨가 남성이라고 알고 있었다. 사진은 SBS ‘궁금한 이야기’ 캡처

경찰, 전청조 출국 금지

사기 혐의 고소·고발 병합

경찰이 전 여자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와 결혼 예정이라고 밝힌 뒤 사기 전과 등이 드러나 논란이 된 전청조씨(27)에 대한 사기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낸다. 서울경찰청은 28일 “최근 전씨 관련 사기 의혹이 확산함에 따라 서울 강서경찰서에 이미 접수된 사기미수 고발 사건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금일 자로 이관 받아 병합 수사 중”이라며 “향후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제보받은 내용을 근거로 지난 25일 강서서에 전씨를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전씨는 제보자 A씨에게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해 신용도와 금리를 조회하고 대출반도록 유도했다. A씨가 돈을 건네지 않아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전씨를 A씨에게 소개한 B업체 대표도 공범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각종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앞서 전씨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 서종호 기자

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전씨가 올해 8월 말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1명으로부터 2천만원을 가로챘다는 내용이다.

전씨의 사기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전씨뿐 아니라 남씨 등을 상대로 사기·사기미수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경찰청에 냈다.

김 의원은 “남씨는 전씨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선물 받았다. 전씨가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들에게 ‘남현희에게 달라고 하면 된다’고 말할 정도로 깊은 관계로 보인다”며 남씨의 공모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앞선 고발 건과 관련해 “고발 뒤 추가 제보를 받았다”면서 제보자가 중국 사업 투자금으로 1억1천만원을 건넸으나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은 각종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앞서 전씨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 서종호 기자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내년에 30개 시군구서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우유를 살 수 있는 카드를 지원하는 ‘무상 우유바우처(현금카드) 시범사업’ 시행 지역을 내년에 30개 시·군·구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범사업 시행 지역은 올해 15곳에서

내년에 두 배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내년에 9만명으로 올해 2만5천명의 3.6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은 편의점과 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원유를 사용한 우제

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현금카드를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한 달에 1만5천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참가자의 재신청 의사가 96.9%에 달하는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돼 내년에 사업 시행 지역을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신청을 받아 다음 달 중 시범지역



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 지역의 지원 대상 학생들은 내년 3월부터 우유바우처를 지원받게 된다. / 진성호 기자

저탄소 친환경 기업

사람중심 가치창출 기업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

ESG 경영 선도 기업

Action for Positive Change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연결하는 혁신적인 금융투자 파트너

교보증권이 함께합니다

2021 한국거제소 코넥스시장 우수IB 선정

2022 KRCA 최초발간부문 우수상 수상

2023 KG제로인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투자자보호 부문 1위

교보증권은 변화하는 세상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로 고객가치를 향상시키고 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습니다.

도전과 창의 + 고객중심 + 정직과 성실

KYODO 교보증권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식거래 시 온라인 매매 수수료는 0.1492%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23호-02637호(2023.07.24 ~ 2026.07.23)

‘재시공’ 검단아파트, 광주 봉괴아파트만큼 보상?…주민 ‘반발’

GS건설, 주거지원비 높이고 대출이자 지원 검토…대위변제 여부 관건

3년 실거주 의무 아파트

입주 6개월 앞두고 재시공 결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대해 봉괴로 재시공하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에 준하는 보상안을 마련한다는 방향을 잡고 협의 중이다.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검단 LH 아파트에선 주거동 콘크리트 강도 저하까지 발견돼 재시공이 결정됐다.

입주예정자들은 무주택이어야 청약할 수 있었고, 3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 데다 입주예정일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재시공이 결정된 검단 아파트는 화정아이파크와 상황이 다르다면 반발하고 있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GS건설은 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기존에 제시한 ‘5년간 6천만원 무이자대출’에서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도금 대출 이자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LH는 입주가 5년가량 미뤄지는 데 대해 가구당 지체보상금 9천만원을 지급하고 일부는 선지급하는 안을 내놨다.

LH와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에게 충분히 보상하고, 입주예정일인 12월 29일 이전 보상안을 확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GS건설은 임병용 최고경영자(CEO)가 물러나고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의 아들인 허윤홍 사장이 CEO로 전면에 서면서 진전된 보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관건은 GS건설의 중도금 대위변제 여부다. 입주예정자들은 입주가 늦어지는 동안 대출이자 부담을 낮추려면 GS건설이 중도금 대출을 대신 갚은 뒤 나중에 청구(대위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GS건설은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입주예정자들은 새로 살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위변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종부채무리금상환비율(DSR)에 걸려 디딤돌대출 등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GS건설은 재시공 범위에 대해선 ‘전면 재시공’을 원칙으로 하되, 외부 기관에서 안전성을 확인한 뒤 입주예정자를 설득해 확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보상 사례를 참고로 협의를 중

재 중이다.

지난해 1월 봉괴 사고가 난 화정아이파크는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이 자체보상금 9천100만원을 지급하고 5년간 주거비 1억1천만원 무이자 대출,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 중도금 대출이자 1천만원 면제 보상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공사에 온전히 책임이 돌아가는 민영아파트인 화정아이파크와 달리 검단 아파트는 공공주택이라 LH와 GS건설 간 책임 공방으로 보상안 협의가 더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두 책임 주체는 서로 책임을 더 질 경우 배임 소지가 있음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예정일을 두 달 앞둔 주민들은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고 호소한다.

공공분양주택인 검단 아파트는 입주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 세대가 입주하게 돼 있었고, 3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주민들이 입주예정일에 맞춰 자녀 학교, 이사 계획 등을 세워뒀기 때문이다.

김순영 입주예정자협의회 부회장은 “조사를 해봤더니 입주예정 세대의 초등학생만 700~800명인데, 아이들이 중학생이 될 때까지 5년간 전셋집을 전전해야 하는 것”이라며 “5년을 다른 곳에서 떠돌면서 중도금 이자까지 납부하라는 게 지금의 보상안”이라고 비판했다.

분양권이 주택으로 잡히면서 현재 거주 중인 임대아파트에서 나가야 할 위기에 처한 이들도 있다.

LH와 GS건설은 오는 31일 입주예정자들과 만나 보상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주관으로 LH와 GS건설이 적극적으로 협상했고, 그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조만간 원만한 타결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LH는 외벽 철근 누락이 확인된 검단AA21 아파트에 대체선 ‘전면 재시공’까지 포함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재시공하든 종타 공법(기존 구조문에 추가로 보강)을 지속하든 입주자가 만족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신승호 기자

비명계 지역에 친명 원외·비례 도전장…‘자객 공천’ 논란

친명 ‘시스템 공천’ vs 비명 ‘불공정 공천’…내홍 재부각 우려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원외 인사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대거 비명(비이재명) 계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공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성 친명계 원외 인사들의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소속 인사들이 내년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강위원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송갑석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서구갑 출마를 선언했다.

강 총장은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지냈고, 지난 대선 때는 당시 이재명 후보 비서실에 몸담았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운영위원장인 김우영 강원 도당위원장은 고향인 강원 강릉 출마를 준비하다 최근 서울 은평을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평을 은 비명계 강병원 의원의 지역구다.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 지역구인 경기 화성을에는 이 대표 경기지사 시절 경기복지재단 대표를 지낸 진석범

동탄복지포럼 대표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해철 의원 지역구(경기 안산상록갑)에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종민 의원 지역구(충남 논산계룡금산)에 황명선 전 논산시장, 윤영찬 의원 지역구(경기 성남중원)에 현근태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상민 의원 지역구(대전 유성)에는 이경 상근부대변인이 각각 도전장을 냈다.

이 대표가 지난 8월 대거 특별보좌역으로 임명한 인사들도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 도전하기로 했다.

박군택·김문수·정진숙 특보는 각각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 지역구에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원외 인사뿐 아니라 김의겸·양이원영 의원 등 친명계 비례대표 의원들도 일찌감치 비명계 의원들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지고 표밭을 깔고 있다.

김 의원과 양이 의원은 각각 비명계인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과 한판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친명계 인사들의 행보에 비명계에선 ‘자객 공천’을 우려하며 잔뜩 경계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 체제가 갖는 중대한 한계나 결함 때문에, 앞으로 있을 공천이나 당무에서 공정하지 못한 처사가 많을 것이라는 불신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명 성향의 유튜버들이 비명계 의원들을 깎아내리며 경쟁자인 친명 인사들을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영상을 올리는 것도 비명계는 주시하고 있다.

약 85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새날’은 지난 28일 송갑석 의원의 공약을 평가절하하는 영상을 올렸다.

친명계는 ‘시스템 공천’ 체계가 갖춰져 있는 만큼 ‘비명 속아내기’를 위한 불공정한 공천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친명(조정식 사무총장)이 아닌 인사로 바꿔야 한다는 비명계 주장에도 당 지도부는 선을 긋고 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조정식 사무총장이 관례대로 총선기획단장을 맡는 것에 비명계가 공천 파동을 우려한다’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분(비명계)들의 주장인데 대세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다만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로 당 내분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에서 공천을 둘러싼 계파간 대립으로 내홍이 극심해질 것이라 우려도 나오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BBS 라디오에서 “현재 민주당의 최대 혁신은 단결”이라며 “말로도 통합, 행동도 통합이 돼야지 말은 통합이고, 행동은 분열로 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송원기 기자



예산정책협의회 참석한 홍준표 시장

홍준표 “징계 취소하면 될걸 대사면 운운

관심 없고 연연 안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30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자신과 이준석 전 대표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1호 혁신안 ‘대사면’을 두고 “단순히 징계를 취소해 버리면 될 걸 대사면 운운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홍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대구 지역 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사면이란 건 죄지은 자를 용서해주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당에 무슨 대통령이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의 징계 취소 처분이 결정된다면 수용할 것 이나는 질문에 “거기에 관심도 없고 거기에 연연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홍 시장은 “징계 취소를 하고 안 하고는 내가 정치하는 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내년에 출마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징계받은 게 앞으로 정치 행보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페이스북 글에서 ‘내년 총선 후 새로운 세력과 다시 시작한다’고 밝힌 것이

탈당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물음에는 “참 불쾌한 질문”이라며 “이 당을 30년 지켜온 사람이다. (지지율) 4%밖에 안 되는 정당을 되살린 사람이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그런 지류 지면의 실개천이 아니고 나는 본류”라고 일축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제기한 ‘영남 중진 수도권 차출론’을 놓고는 “(미국) 콜로라도주 의원을 워싱턴DC에 갖다 놓으면 선거가 되나”라고 맞받았다.

홍 시장은 다만 인 위원장의 각종 발언으로 당이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당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당을 활기차게 하는 것”이라며 “우리 당이 그만큼 주목받아본 일이 있었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활기차게 당이 돌아가는 걸 혼란스럽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자체가 기득권 카르텔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 백건우 기자

금융의 모든 순간

매주 전화로 꼭 만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식사는 거르지 않는지 행여나 적적하지는 않나 혹시라도 이상한 전화를 받을까 하니부터 열까지 물어봅니다.

나를 한걸음이 생겨주는 고마운 친구가 있습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준 은행

나의 은행 이야기

농촌 독거 어르신 밀벗서비스

NH농협은행은 2008년부터 농촌지역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일부 전화 서비스로 따뜻한 말벗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BUSAN, KOREA NH농협은행이 응원합니다

NH농협은행

“내달 9일 재난기본법·우주항공청법·기축법·현수막법 처리”

野 전향적·대승적 협조 부탁

국민의힘이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법’, ‘우주항공 철저 특별법’,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법’, ‘한계 기업 회생 지원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야당에 협조를 당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우주항공 철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시급한 법들이 있는데 국정감사 때문에 3주 정도 법안 처리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빨리 여야 간에 만나서 11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은 빨리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쟁을 지양하기 위해 현수막을 최소화하는 옥외광고물법도 11월 9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 독려하고 있다”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정무위원

회에, 재난기본법은 행정안전위에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전향적, 대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민주당 홍의표 원내대표에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행안위에 계류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과방위에 계류된 우주항공 철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시급한 법들이 있는데 국정감사 때문에 3주 정도 법안 처리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빨리 여야 간에 만나서 11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은 빨리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쟁을 지양하기 위해 현수막을 최소화하는 옥외광고물법도 11월 9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 독려하고 있다”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정무위원

리게 된다”며 “이번 정기국회는 21대 마지막 정기회이므로 법안도 막린 숙제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민생법안 하더라도 더 통과시키려는 자세로 연말 정기국회를 대비해야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상임위 여당 간사들을 소집해 민생 법안 관련 회의를 열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아 혼란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법안이 통과돼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가는 것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무부가 소관 상임위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한계 기업의 정상화를 돋는 내용으로, 5년 한시법이 최근에 일몰돼 기업 줄도산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앞서 의총에서 “내일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예산과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열

/ 정수호 기자

외교부, ‘필리핀 경찰에 피살’ 韩유족 서한에 “영사조력 제공”

외교부는 필리핀 양헬레스에서 7년 전 현지 경찰에 의해 남자·살해된 고(故) 지역주씨 유족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 입장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피해자 유족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사건 진상 규명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 “현재 필리핀 사법부에서 관련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지역주씨는 2016년 10월 18일 양헬레스 자택에서 필리핀 경찰들에게 납치돼 살해됐다.

필리핀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5명을 최종 기소했으며 약 8개월간 84차례에 걸쳐 심리가 진행됐고, 법원은 올해 6월 1심 판결에서 2명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명에 대해서는 검찰의 혐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정 나서는 필리핀 한인 사업가 부인 최경진씨

나머지 2명 중 1명은 국가증인으로 석방됐고 다른 1명은 사망했다. 필리핀 검찰은 지난달 4일 항소를 제기했다. / 오윤호 기자

동물단체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처리해야…국격의 문제”

여의도 국회 앞 집회…민주당·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행진

동물단체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행강, 캐치독, 카라 등 27개 동물단체는 이날 오후 열린 집회에서 “정부와 국회는 완전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입법과 실행에 지금 당장 나서라고” 주장하며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이번이 개 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마지막 집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개 식용 종식의 당위성에 대한 이해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특별법의 연내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은 여야를 통틀어 모두 5개다. 연내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내용의 결의문도 여야 하나 씩 2개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2023 개 식용 금지법 제정 촉구 국민대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한 어린이는 “내 동생과 같은 개들이 잔인하게 죽어가는 게 너무 슬프다”며 “더 이상 개들이 식용으로 죽어가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대통

령 아저씨께서 빨리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다른 집회 참가자는 “개 먹는 나라라는 오명은 ‘K-컬쳐’의 자부심마저 사라지게 한다”며 “개 식용 종식은 개인의 선택

을 넘어 국격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행진했다.

현재 여야가 개 식용 금지 입법화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21대 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 식용 금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금지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당내에선 이를 ‘김건희법’으로 명명하며 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국회에서 개 식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개 식용 종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7개 부처 차관급 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다. / 한용석 기자



‘마약 혐의’ 이선균 경찰 출석

다이소 육실 슬리퍼 1종 자발적 리콜 납·카드뮴 기준 초과



해당 아성 제품은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바스존 제품은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성과 바스존 측은 용인 YMCA의 시중 유통 합성수지 제품 모니터링 결과 자사 일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발적 리콜에 나섰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 사용자들에게 구매처를 방문하거나 사업자에게 연락해 환불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받으라고 안내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생활용품 매장 다이소를 운영하는 (주)아성이 작년 10월부터 수입해 판매한 PVC 밸포 물빠짐 육실화(민트색 270mm) 5만3천여 켤레와 (주)바스존이 작년 3월부터 수입·판매한 애니멀 육실화 4만4천여 켤레다.

/ 황윤지 기자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30대, 운전자 바꿔치기까지…징역 2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고 도망간 뒤 자신의 회사 직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한 3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문경훈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범인 도피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20대 B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0시 20분께 부산 남구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50대 여성과 충돌해 50대 여성과 함께 차량에 끌려나온 후 도주하고 B씨에게 사고와 관련해 허위 진술을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벤츠 승용차를 몰던 A씨는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50대 여성과 함께 차량과 충돌해 차량에 끌려나온 후 도주했다.

이 사고로 피해 여성은 전치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 B씨에게 “뭐든 다 해줄 테니 대신 운

전한 것으로 해달라”며 “이번에 처벌되면 실형을 선고받을까 봐 두렵다” 부탁했다.

A씨는 2018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2월에는 음주하고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아 당시 수사받던 중이었다.

이에 B씨는 관내 경찰서에 찾아가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43%(면허 정지 수준)였으며, 앞선 교통사고로 면허조차 없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는 크게 다친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도 그대로 도주했으며 이후에도 자신의 지휘를 받는 직원에게 허위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게 했다”며 “비록 교통사고 피해자가 A씨와 협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양승진 기자

경찰, 이선균 통화내역 확인 중 소변·모발 긴급감정 추진

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신속하게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이 앞서 이씨의 소변을 채취해 진행한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경찰은 전날 소환조사에 응한 이씨가 진술을 거부하자 조만간 다시 일정을 잡아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다음에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뜻을 밝혀서 현재 변호인과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강 조사를 거쳐서 이씨 등 마약 혐의 입건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강희진 기자

교육기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초등학교 화재에 대비한 토론·현장훈련과 함께 유치원, 특수학교, 대학기술사, 국립대병원 등의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각 교육청과 대학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다양 한 재난 상황을 가정해 훈련

에 나설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학생·교직원의 안전의식과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노건우 기자

SAMSUNG

T7 Shield

압도적 내구성의 포터블 SSD

연속 읽기 성능 1,050MB/s | 연속 쓰기 성능 1,000MB/s | IP65 등급 방수·방진 | 최대 3m 낙하 충격 보호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samsung.com/portable-ssd>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AMSUNG

네타냐후 “가자 지상작전 두번째 단계”…이란 “레드라인 넘었다”

“인질 구출 위해 모든 노력”…“이란 지원 없이 하마스 존재 불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지상 작전을 시작하면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이 두 번째 단계에 진입했다고 선언했다.

이에 이란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면서 본격 대응을 경고해, 이란의 지원을 받는 중동내 반서방·반イス라엘 성향 국가와 무장세력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텔아비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가자지구에서 시작한 지상 군사작전으로 전쟁이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섰다면서 “길고 어려운 전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두 번째 단계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하마스의 통치와 군사력을 폐괴하고 인질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에 잡혀 가자지구에 억류된 200명 이상의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상 군사작전이 인질 구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작전 중에도 인질 석방을 위한 접촉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질 구출과 하마스 외해가 절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민간인이 위험에 처했다는 비판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범죄로 비난하는 사람들은 위선자”라고 반박하면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도덕적인 군대”라



이스라엘 전시 내각 지도부 기자회견

고 주장했다.

그는 서방과 아랍국가의 이스라엘 동맹국들은 하마스와의 전쟁을 이해하고 승리를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공격 배후에 이란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란의 지원 없이는 하마스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세부적으로 이란이 지난 7일 공격에 개입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서방을 적대시하는 ‘악의 축’”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현재 군이 하마스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하마스를 더 많이 압박할수록 인질들을 구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쟁을 확대하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모든 전선에 대해 준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전시 내각에 참가한 제2야당 국기통합당의 베니 간츠 대표도 “지상 작전에 인질 구출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대비하지 못한 책임을 질 것이라는 질문에 네타냐후 총리는 “끔찍한 실패가 있었다”면서 “사태의 모든 측면에 대해 하나하나 조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자 지상 작전 2단계 돌입과 함께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긴급히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29일 새벽에 발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가자지구와 가자시티의 민간인들은 와디 가자 남쪽 안전지대로 일시 대피하라. 그곳에서 물과 음식, 의약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곳에서 월요일(30일)에 이집트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주의 노력이 확장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은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29일 엑스(엑스 트위터)에 글을 올려 “시오니스트(유대민족주의) 정권의 범죄가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이것이 모두를 행동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라이시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스라엘에 전방위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대립각을 끌어올렸다.

이스라엘군이 지상전을 확대하는 가운데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누적 사망자가 1천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가자 보건부가 전날 오전에 집계한 누적 사망자는 7천703명이었다.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완전히 끊겼던 가자지구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가 이날 새벽 천천히 복구되고 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앞서 인질 가족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이스라엘은 인질의 귀환을 위해 가능한 모든 옵션을 동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인 야히야 신와르는 이와 관련, 양국 인질과 이스라엘에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 죄수들을 교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폐허처럼 변한 아카풀코 요트 선착장

멕시코 허리케인 사망자 39명으로 급증

구호품 전달 지역에 식량난 이어져

멕시코 서부를 강타한 초강력 허리케인 ‘오티스’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사망자 수도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멕시코 정부에서 제공하는 허리케인 오티스 일일 대응 보고서를 보면 28일(현지시간) 현재 사망자 수는 39명(남성 29명·여성 10명)으로 파악됐다. 전날 기준 27명에서 12명이나 증가한 수치다.

이는 허리케인 피해가 집중된 게레로 주의 법무장관실에서 확인한 내용이라고 연방정부는 밝혔다.

앞서 허리케인 ‘오티스’는 허리케인 세기 구분상 가장 강력한 카테고리 5등급까지 세력을 키우며 25일 새벽 계레로주 해안가를 훑쓸었다.

이 나라 대표 휴양지인 아카풀코의 피해가 특히 막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22만채를 비롯해 태평양 해안가에 늘어선 벽체 손상과 시설물 파괴 등 호텔 80%

아카풀코 인구 67만명 중 51만3천여명이 정전으로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날 현재 20여만명은 여전히 전력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멕시코 정부는 보고서에서 “이날 현재 송전선 37개, 변전소 26곳, 발전소 1곳에 서 수리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산사태와 인근 강물 범람 등 때문에 도로 6곳은 폐쇄됐다. 침수 피해를 본 종합 병원 2곳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민간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했던 아카풀코 국제 공항은 정상 운용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도로 사정 등으로 구호품 전달이 일부 늦어지면서, 식수·식량·연료 난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이 상점에서 식료품을 쟁쟁가는 행위도 이어지고 있다. 일간지인 엘우니베르살은 현지에 급파된 군 장병과 국가방위대원이 대형 마트와 편의점 등지에 배치돼 주민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차주현 기자

/ 송진영 기자

“수산물 수입금지에 日가리비 가공 中업자 동남아로 이전 검토”

중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가 2개월 넘게 지속하면서 일본산 가리비를 가공해 온 중국 수산업자들이 가공 거점을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수산업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르면 연내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가공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일본산 가리비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이전에 주로 중국으로 수출돼 하비 이성과 산동성 등 현지 공장에서 가공한 후 미국 등으로 재수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중국이 지난 8월 24일 오염수 방류 대응 조치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중국 수산업자들이 수입 금



가리비와 굴 어획한 일본 어선

지 장기화를 예상하고 가리비 가공 거점을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 배영성 기자

인도 여호와의 증인 행사장서 폭탄터져…1명 사망·수십명 부상



“사제 폭탄 터져… 테러 여부는 조사해 봐야”

인도 남부에서 열린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기도회를 진행 중이었다.

여호와의 증인 측은 폭발이 총 3번 발생했다며 첫 번째 폭발은 행사장 한 가운데서 일어났고 몇 초 후 흰 양쪽에 서 동시에 두 번의 폭발이 더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현지 경찰은 예비 조사 결과 1명이 사망하고 36명이 다쳤다며 사제 폭발 물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

다. 다만 테러 공격에 의한 폭발로 보는 현지 기자들의 질문에는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며 “조사를 해봐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특별 수사팀을 활동했으며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일에 대해 피나라이 비자얀 캐랄라주 총리는 이번 사건은 매우 불행한 일이며 경찰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부상자들에게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인도 중앙 정부도 사건 조사를 위해 대테러 조직인 국가안보경비대를 현장으로 보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에는 약 6만명의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있다. 지난 3월에는 독일 함부르크의 한 여호와의 증인 회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6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 박지원 기자

한눈에 팔자

투자의 모든 정보가 한눈에 락!

돈이 되는 모든 정보
KB증권 오늘의 콜

투자를 뚝딱
깨비증권

*한국금융투자협회 실사필 제25-02100호(2023.06.12~2024.06.11)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 저산 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 등으로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체)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지속됩니다. 국내 주식거래 수수료 HTS, 홍페이지 1천만 원 이상~5천만 원 미만 0.1273%+2,000원/모비일 0.1973% 일률 적용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정 “팬데믹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57만명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완화 차원…이자 경감책 확대·내수 활성화 강력 추진

코로나 팬데믹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일부 재난지원금에 적용될 예정이던 환수 조치가 백지화된다.

팬데믹 당시 과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지원금을 선지급했는데, 이후 매출 증가 등이 확인된 경우가 그 대상이다. 약 57만 소상공인에 대해 8천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9일 삼청동 종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대는 협의회에서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1·2차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 중 일부 선지급분에 대한 법률상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고,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 등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앞서 발의한 개정안은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중 매출이 오른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 환수하지 않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보조금관리법·공공재정부정이익 환수법상 매출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코로나 지원금의 경우 매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 또는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종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었던 점, 현재도 고금리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오지급된 손실보상금 등은 환수 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 출발기금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매출 증대를 위해 전 국민 소비캠페인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 등을 열어 전국적 할인 행사를 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대책은 시행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개선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하락세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누증된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상황인 만큼 금융 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

해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부터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 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는 등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날 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현상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를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등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담보 대출 등 자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뜻한다.

당정은 서민·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 강화에도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특히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을 서민·저가 주택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공급 목표치인 39조 6천억원을 넘겨도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채무자의 연체·주심 부담을 완화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채무자 보호법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프스킨병 확산과 관련, 농가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와 관계 없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법령상 방역 수칙 미준수 시 살처분 보상금이 산감되지만, 농가의 발병 초기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에 대해서도 방역관리에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 대책의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지자체에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야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 박수석대변인은 “추가로 이야기한 게 없다”면서 “어떤 방식으로 더 진상규명이 필요한 건지 남들하기 쉽지 않다”며 기존의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 박병호 기자



LG전자, 파리 풍피두센터 앞에 트롬 워시타워 구조물 설치

파리 풍피두센터 앞에 ‘초거대’ LG 트롬 워시타워가 떴다

프랑스 파리에 ‘초거대’ LG 트롬 워시타워가 등장했다. LG전자, 파리 풍피두센터 앞에 트롬 워시타워 구조물 설치

LG전자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있는 현대미술관 풍피두센터 앞 광장에 LG 트롬 오브제컬렉션 워시타워의 제품 외관을 그대로 표현한 높이 8m 초대형 구조물을 설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풍피두센터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미술관 중 하나로, 건물 앞 광장에는 하루 5만 명 이상이 다녀간다.

관람객은 거대한 워시타워 안으로 들어가 실제 제품이 설치된 드레스룸 공간에서 워시타워의 디자인과 편리함 등을 경험했다. 현장 이벤트를 통해 LG전자가 유명 와구 브랜드 ‘플레이모빌’과 협업해 만든 워시타워 피규어 굿즈 등을 상품으로 받기도 했다.

LG전자는 이번 초거대 워시타워 행사장소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응원하는 광고판을 설치해 프랑스 고객에게 부산을 알렸다.

LG 트롬 워시타워는 드럼세탁기와 건조기를 직렬로 연결해 일체형으로 구현한 세탁·건조기다. LG전자는 작년 7월 프랑스 고객에게 워시타워를 처음 선보였다.

올해 6월 가로 600mm, 깊이 660mm, 높이 1천655mm로 제품 크기를 줄인 워시타워 콤팩트를 출시한 후 워시타워 제품 판매량이 150% 이상 증가하는 등 인기를 얻고 있다. 좁은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고 기존 제품보다 편리해 공간 활용도를 중시하는 유럽 고객에게 인정받고 있다고 LG전자는 전했다.

김재승 LG전자 H&A 해외영업그룹장(상무)은 “감각적이고 미니멀한 디자인에 차원이 다른 성능과 편리함까지 갖춘 워시타워를 전 세계에 알리며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선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이찬우 기자

SAMSUNG

Galaxy Z Flip5

The advertisement features a woman holding a Samsung Galaxy Z Flip5 smartphone. The phone is open, revealing its foldable screen displaying a colorful cartoon character. The woman has long dark hair and is wearing a black top. The background is a plain white. At the bottom of the ad, there is a small logo for 'World EXPO 2030 BUSAN, KOREA' and the website 'samsung.com'.

KT, 상용차 커넥티드카 설루션에 AI 보이스봇 등 추가



타타대우상용차 직원이 인천 서구 타타대우 인천직영정비사업소에서 차량품질관리설루션(VRM)을 활용해 원격으로 차량 품질을 분석하는 모습

KT는 타타대우상용차와 출시한 상용차 커넥티드카 설루션 ‘센링크(XENLINK)’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편의 기능을 강화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KT는 AI컨택센터(AICC) 기술을 적용해 센링크에 AI 보이스봇을 도입했다. 보이스봇은 애플리케이션(AS)

접수, 보증 기간과 소모품 교체 주기 사전 알림 제공,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에 활용된다.

디지털운행기록(DTG)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위한 ‘운행 기록 자동 제출 서비스’도 새로 제공한다.

교통안전법상 교통안전공단에 디지털

운행 기록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운행 기록 제출 책임을 위탁받아 KT 자체 플랫폼을 통해 차량에서 수집된 운행기록 정보를 공단의 연동 규격에 맞춰 자동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제출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막고, 차주가 직접 자료를 내려받고 올려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

아울러 KT는 타타대우에 제공하는 센링크의 차별화 서비스인 ‘원격 차량 품질 관리 설루션’(VRM)도 강화했다.

고도화한 설루션은 차량 수집 데이터를 분석해 품질 문제 원인을 추적하고, 부품 사전 수리를 권고하거나 개선 항목을 도출한다.

센링크 가입 차주는 정비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설루션을 통해 원격으로 주요 부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 임현주 기자

세븐일레븐, ‘대파열라면’ 인기에 PB컵라면 전종 이벤트

세븐일레븐은 ‘세븐셀렉트 대파열라면’ 인기에 힘입어 11월 한 달간 모든 PB(자체브랜드) 컵라면을 원 플러스 원(1+1) 또는 투 플러스 원(2+1)에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달 대표 PB라면인 ‘대파라면’과 오뚜기의 대표 매운맛 라면 ‘열라면’을 접목한 ‘세븐셀렉트 대파열라면’을 출시했다.

대파열라면은 포털사이트 컵라면 인기 검색어 6위에 오르는 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큰 관심을 받았고, 세븐일레븐의 PB컵라면 매출 증가에 기여했다.

세븐일레븐의 이달 컵라면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30%, PB컵라면 매출은 70%



각각 증가했다.

이에 세븐일레븐은 ‘세븐셀렉트 강릉 교동반점짬뽕’ 등 PB컵라면 7종을 2+1에, ‘세븐셀렉트 매콤뽀요면’ 등 2종을 1+1에 각각 한 달간 판매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 정유진 기자

LH, 내일부터 공공전세주택 1천73호 청약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30일부터 공공전세주택 1천73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873호, 그 외 지역이 200호다. 공공전세주택은 LH가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폐쇄한 도심 내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 주택과 아파트를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가 없는 전세 주택으로, 무주택 수요자를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90% 이내 가격으로 공급한다. 거주 기간은 최대 6년이다. / 권정석 기자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BUSAN, KOREA



Shinhan

player 모집

너답게 다 플레이 해

신한 p\ay

빠른 결제하는
성격 급한 플레이어

한 눈에 자산관리하는
관리가 필요한 플레이어

커뮤니티로 새 관심사 찾는
무한 도전 플레이어

콘텐츠 추천 받는
관심사 편식 플레이어

신분증, 멤버십, 증명서까지
가볍게 사는 플레이어



신한Pay를 기반으로 편리한 금융 서비스와 다양한 라이프 콘텐츠 등
마이데이터 시대를 함께 할 신한카드의 대표적인 종합생활금융 플랫폼

준법감시 심의필 제20230418-Cpn-001호(2023.04.18~2024.04.17)

1Lead by S 신한카드

오세훈, 이태원참사 1년 추모식 참석…‘안전 서울’ 만들겠다

핼러윈 앞두고 홍대거리 점검…이태원 참사 현장 찾아 묵념



홍대 거리 점검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핼러윈(10월31일)을 앞둔 주말 도심 변화가를 점검하고 ‘안전 서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또 29일 오후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10·29 1주년 추모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밤 자신의 페이

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금 전 홍대입구역 일대의 거리를 다녀왔다”며 “핼러윈을 맞아 인파가 북적였지만 나름의 질서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들의 질서 의식이 한층 성장했음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방·경찰·구청의 안전 인력이 곳곳에서 질서 유지에 힘쓰고 있고 주요 거리에 설치된 안전 유지선도 한몫했겠지만, 시민 여러분들 스스로 지나친 밀집은 피하고 우측통행도 잘 지켜주는 질서 의식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의 큰 아픔을 딛고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 “어제(27일)는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께 추모의 묵념을 올렸다”며 “다시는 그날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 서울’을 만드는 데 중단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 송원기 기자



빵의 도시 대전, 빵빵한 빵 축제

“대전으로 빵지순례왔습니다” 대전빵축제 관광객 문전성시

“빵으로 유명한 대전 유명 빵집들을 발품 팔지 않고 한 번에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이 좋죠”

29일 오후 대전 중구 서대전공원 내 대전빵축제장에서 만난 강모(32·경기 수원)

씨는 “좋아하는 빵이 한가득 모여 있어서 빵 좋아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축제일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완연한 가을 날씨를 맞아 많은 시민이 가족, 연인, 친구끼리 모여 삼삼오오

축제장을 찾았는데 다양한 빵을 맛보고 즐기며 사진으로 남기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다. 지역 유명 빵집을 찾아 다니는 이른바 빵지순례(빵과 성지순례의 합성어) 관광객들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양손 가득 든 빵 봉투와 꿈들이 조형물을 배경으로 인증사진을 찍기도 하고, 빵집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미션에 참가하고, 구매한 빵을 즉석 시식대에서 맛보기도 했다. 웃음꽃을 띤 상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축제 행사장에는 거리공연, 빵 골든벨,

석고 마임 퍼포먼스, 국악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체험 거리가 펼쳐졌다.

우송정보대에서 운영한 쿠키·케이크 꾸미기 체험 부스는 특히 가족 방문객들의 인기를 끌자지했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인기 빵집 앞으로는 200m가 넘는 대기 줄이 늘어졌고, 오후 1시 이후에도 축제장 밖에서는 입장장을 기다리는 인파가 계속 늘어났다.

수천 명이 동시에 몰린 탓에 불편을 호소한 방문객들도 적지 않았다.

대전관광공사는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열린 이번 빵 축제에 모두 12만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잠정 집계 중이다.

대전관광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대비 참가업체도 35%가량 더 늘었고, 축제장도 더 넓은 공간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인근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조치했다”며 “내년에는 더 촘촘한 준비로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 임희영 기자

아시아 7개국 시멘트 생산업체, 부산서 탄소중립 대응 논의

아시아 주요 7개국 시멘트 생산업체 대표단 80여명이 부산에 모여 업계의 당면 과제인 탄소중립 대응 계획을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지난 27일 부산 시그니엘호텔에서 ‘제69회 아시아 시멘트 생산국 친선회의’(ACPAC)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1973년 7월 ‘제1회 한·대만 시멘트 생산자 친선회의’로 시작한 ACPAC는 현재 한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7개국의 시



멘트 생산업체가 참여하는 아시아 시멘트 산업 대표 협의체로 성장했다.

매년 7개국이 번갈아 ACPAC를 개최한

다. 한국에서는 지난 2020년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렸다. 참석자들은 부산에 모여 우의를 다지

는 한편 회원국 건설산업 동향, 시멘트 내수와 수출입 통계 정보 등을 공유하고 탄소중립 대응 계획과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현준 한국시멘트협회장은 “아시아 시멘트 산업 간 공동협안 온실가스 감축을 성공적으로 달성해 탄소중립을 완수 하자”고 당부했다.

협회 측은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의 성공적 유치에 힘을 보태고자 행사 개최 장소를 부산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 신정수 기자

광고 문의 : 1533-1545

‘반드시 받아낸다’ 강원 체납징수단,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8가구 수색·2천800만원 징수…명품가방 등 44점 압류 조치



가택수색 진행하는 강원 체납징수단

강원특별자치도는 시군 징수공무원과 함께 체납징수단을 꾸려 호화로운 삶을 살면서 납부를 기피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가택을 수색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고액 체납자 8가구를 수색해 현금 2천8백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명품가방, 귀금속 등 44점을 압류 조치했다.

일부 체납자들은 체납액 1억3백만 원에 관한 분납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30여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했다.

지방세 5천6백만원을 체납한 A씨는 본인 명의 재산이 없음에도 배우자가 아파트와 고급 외제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체납징수단은 그에게서 9백만원을 받아내고 나머지 금액에 관해서는 분납계획서를 받았다.

B씨의 경우 소유한 재산도, 납부할 여력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자택에서 명품 가방 등 고액의 물건들이 15점 발견돼 전부 압류했다.

도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외에도 권리별 번호판 영지,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체납 징수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게 강도 높은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해 성실납세자가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 의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민정훈 기자

골목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아이들

작은 인형극 소리에 귀 쫑긋



장난꾸러기 할아버지와 마음씨 좋은 할머니가 ‘친구들 무서워하지 말고 사진 찍자’며 다가가자 아이들은 조심조심 커다란 손안으로 푹 들어가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노부부의 나들이’ 퍼레이드가 끝나자 어린이들은 테이블 인형극 ‘괴물 신드롬’이 예정된 한 음식점 앞으로가 작은 매트 위에 앉았다.

아이들은 악몽을 꾸는 8살 ‘민수’가 괴물을 만날 때마다 마치 민수인 것처럼 짐짓하며 작은 무대를 바쁘게 움직이는 인형들을 바라봤다.

언니와 함께 왔다는 김은채(9)양은 “집이 근처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길래

AI to [A.]

매일 자라는 아이처럼
매일 성장하는 AI가
가까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사람처럼 대화하고 함께 성장하는
나의 AI 친구 A.(에이닷)

SKT의 AI는 어디에나 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A. 이 힘끼 성장하고 있어요

AI to Everywhere SK telecom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GS그룹이 응원합니다

따뜻함은 나누고 에너지는 더하고

GS 칼텍스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유 지원에서부터 단열, 창호, 고효율 보일러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까지 쉼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우는 무한 에너지,
GS칼텍스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I am your Energy

나눌수록 커지는
긍정에너지





We Hope Together World EXPO 2030 BUSAN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Shinhan Financial Group supports to host World EXPO 2030 BUSAN



World EXPO 2030
BUSAN, KOREA



신한금융그룹

'K리그1 2연패' 홍명보 감독의 겸손...“주인공은 내가 아닌 선수”



우승 환호하는 홍명보 감독과 코치진

프로축구 울산 현대의 'K리그1 2연패' 와 '네 번째 우승별 사냥'을 지휘한 홍명보(54) 감독은 하나원큐 K리그1 2023 우승 확정의 공을 선수들에게 돌렸다.

홍 감독이 지휘하는 울산은 29일 울산 문수경기장에서 열린 대구FC와 하나원큐 K리그1 2023 파이널 A 35라운드 홈경기에서 김민혁과 장시영의 릴레이 득점을 앞세워 2-0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울산(승점 70)은 2위 포항 스틸러스(승점 60)와 승점 차를 10으로 벌리며 남은 3경기 결과에 상관 없이 우승을 확정했다.

지난해 챔피언인 울산은 창단 이후 첫 K리그 2연패 달성을 더불어 통산 4번째 우승을 따냈다.

경기가 끝나고 기자회견에 나선 홍 감독은 "우승은 매번 좋다"라며 "오늘 주인공은 감독이 아니라 선수다. 이번 시즌 어려운 상황도 많았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나 기쁘다"고 활짝 웃었다.

다음은 홍명보 감독과의 일문일답.

▲울산이 창단 이후 처음 K리그 2연패를 달성했는데 소감은.

오늘 우승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선

"악재 많았던 시즌...무너지지 않고 우승했다"

수들이다. 감독으로서 팀을 이끌면서 어렵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우승 타이틀을 획득하며 해피엔딩으로 끝난 게 개인적으로 가장 기쁘다.

우승을 위한 마지막 경기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했지만, 선수들에게 '집중하는 한 주가 되자'고 말했다. 선수들이 잘 따라줬다. 후반기 들어서 맘고생이 많았는데 우승을 이뤄냈다.

▲지난 시즌 우승할 때와 올 시즌 우승의 느낌에 차이가 있나.

우승은 매번 좋은 것이다. 작년에는 17년 만의 우승을 꼭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처음 시작이 좋았지만, 마지막 과정이 좋지 못했다. 만약 막판에 무너졌다면 예전의 모습이 나왔겠지만 안 무너지고 어느 때보다 빨리

우승했다. 올해 경기장 안팎으로 이슈가 많았는데,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을 배운 한해였다.

▲이번 시즌 터인 포인트는?

솔직히 터닝 포인트가 없었다고 할 만

큼 시즌 막판 썩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33라운드를 마치고 스플릿 5경기 대진표가 나왔을 때 상대를 보고 첫 2경기 안에 끝내겠다고 생각했다.

지난 24일 조호르(말레이시아)와 ACL 경기에서 이기면서 체력과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게 우승에 도움이 됐다.

▲오늘 교체 선수 2명이 모두 골을 넣었는데.

솔직히 그 상황에서 득점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전반을 마치고 후반에 득점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은 있었다. 선수들의 결정력을 믿었고, 새로 들어간 선수가 득점한 것은 운도 따랐다.

▲'10년 주기 대운설험'을 단축하겠다고 말했었는데.

개인적으로 나의 지도자 커리어는 솔직히 중요하지 않다.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즐겁게 성장하는 게 관심사다. 오늘 흠크라운드에서 우승한 게 가장 기쁘다. 팬들에게 항상 감사하다.

/ 최준용 기자



부상 탓에 플레이오프 출전이 무산된 강백호

kt 강백호, 플레이오프 출전 무산

NC 페디는 1차전 선발

강백호(24·kt wiz)의 프로야구 플레이 오프(PO) 출전이 끝내 무산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23 PO 출전자 명단을 29일 공개했다.

정규시즌을 2위로 마친 kt와 와일드 카드 결정전, 준PO를 뛴은 정규시즌 4위 NC 다이노스는 30일부터 5전 3승제의 PO를 치른다. 이강철 kt 감독은 핵심 타자 강백호를 PO 엔트리에서 제외했다.

강백호는 지난 26일 수원 케이티위즈 파크에서 벌인 자체 청백전에서 5번 지명 타자로 선발 출전해 2회말 첫 타석에서 옆구리 통증을 느꼈다. 정밀 검진 결과 우측 내복사근 파열 진단이 나왔다.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어서 실전을 치를 수 없다.

kt의 강점은 선발투수진이다. 1차전 선발로 예고한 윌리엄 쿠에바스는 물론이고 / 이순영 기자

웨스 벤자민, 고영표가 충분히 휴식한 뒤 등판을 기다린다.

'전천후 투수' 엄상백은 통릴리프로 PO를 치른다. 정규시즌에 선발로 던진 배제

성도 상황에 따라 PO에서는 불펜에서 대기할 수 있다.

강인권 NC 감독은 준PO 엔트리에 넣었던 원순 불펜 하준영을 빼고, 오른손 불펜 이용준을 PO 엔트리에 넣었다.

준PO 엔트리에는 등록했지만, 등판하지 않았던 '에이스' 에릭 페디는 30일 PO 1차전에서 개인 첫 KBO리그 포스트시즌 경기를 치른다. 페디를 제외하면, 확실한 선발이 없는 NC는 PO 엔트리에 투수를 13명 넣으며 '불펜 싸움'에 대비했다.

kt는 PO 엔트리 30명 중 12명을 투수로 채웠다.

/ 이순영 기자

엄재웅, 박상현 제치고 부산오픈 우승...5년만에 KPGA 2승

손목 수술 딛고 고향 부산에서 우승컵...상금 2억원+부상 2억원

엄재웅이 박상현의 상승세를 누르고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에서 5년 만에 정상에 올랐다.

엄재웅은 29일 부산 아시아드 컨트리 클럽(파71)에서 열린 백송홀딩스-아시아드CC 부산오픈(총상금 10억원) 4라운드에서 1타를 잃었지만 합계 15언더파 269타로 우승했다.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노렸던 박상현은 엄재웅과 같은 챔피언조에서 경쟁을 펼쳤지만 3타 뒤진 합계 12언더파 272타로 2위에 자리했다.

엄재웅은 2009년 코리안투어에 데뷔했지만 주로 아시안투어에서 활동했다.

2018년 9월 휴온스 셀러브리티 프로암에서 우승한 엄재웅은 고향 부산에서 열린 코리안투어에서 두 번째 우승을 차지

하며 공식 상금 2억원과 함께 부상으로 주는 현금 2억원도 함께 받았다.

엄재웅은 또 제네시스 우승 포인트 1천 점과 2025년까지 2년간 출전권을 획득했다. 엄재웅은 2018년 코리안투어 우승 뒤에도 부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2021년 7월 왼쪽 손목 인대 파열로 수술까지 받은 엄재웅은 올해 7월에서야 코리안투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엄재웅은 "고향인 부산에서 많은 팬이 응원해 주셨는데 부담이 아니라 힘이 됐고 그 덕분에 경기도 잘 풀렸다"고 말했다.

아시안투어를 병행하는 엄재웅은 "원래는 다음 주부터 아시안투어에 참가할 예정이었는데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서 취



소했다"며 "앞으로 활동 계획은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박상현에 1타 앞선 단독 선두로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한 엄재웅은 전반 한때 3타 차로 앞서기도 했다.

끈질기게 추격한 박상현은 10번 홀(파4)에서 베디를 잡아 공동 선두를 만들었

지만 엄재웅은 침착하게 플레이를 이어갔다. 14번 홀(파4)에서 박상현이 1타를 잃는 사이 이 홀에서 파로 막은 엄재웅은 16번 홀(파3)에서 우승의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다. 박상현은 16번 홀에서 티샷을 물에 빠뜨린 끝에 더블보기를 적어내는 빼아픈 실수를 했다.

엄재웅도 이 홀에서 보기를 했지만 박상현과의 타수 차를 2타로 벌렸다.

마지막 홀에 오른 엄재웅은 박상현이 다시 보기를 적어내는 바람에 편안하게 파 퍼트를 성공하며 3타차 우승을 차지했다. 박상현은 우승은 못했지만 준우승 상금 1억원을 받아 상금 순위에서 1위(7억5천400만원)로 뛰어올랐다. 또한 제네시스 포인트에서도 4위에서 3위(4천739점)로 한 계단 올라섰다.

함정우는 9언더파 275타로 공동 3위에 올라 제네시스 포인트 1위(5천315점) 자리에 올랐다. / 박종윤 기자

피겨 차준환, 시즌 첫 시니어 GP서 극심한 부진으로 9위



첫 그랑프리 대회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둔 차준환은 사실상 왕중왕전인 그랑프리 파이널 진출에 실패했다.

/ 안병호 기자

대한민국 사장님~ 아직도 모르세요?

중소기업 공제기금

KBIZ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교환 2번) | fund.kbiz.or.kr



▣ 단기운영자금 대출

부금의 최대 3배 이내

▣ 비대면 원클릭 대출

부금의 최대 1.5배 이내

▣ 노란우산 연계 대출

최대 2천만원(연4.5%)

▣ 어음·수표 대출

부금의 최대 7배 이내



홍보대사
이용식

자연스런 케미 폭발…연예인 친분 이용 ‘찐친 예능’ 속속

‘콩콩팔팔’·‘몽골몽골’·‘어쩌다 사장’ 등…평소 친분 두터운 연예인 섭외

연예계 ‘절친’으로 알려진 김우빈, 이광수, 김기방, 도경수. 김우빈은 만나자마자 서로의 옷차림과 말투를 트집 잡으며 티격태격한다. 김기방은 소속사에서 싸준 간식과 준비물을 바리바리 챙겨온 이광수를 ‘네가 아이돌이냐?’며 놀리고, 편하게 입고 모이자는 형들 말에 혼자 반바지 차림으로 등장한 도경수는 어처구니없다는 듯 웃음을 짓는다.



지난 13일 첫 방송을 시작한 tvN 새 예능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이하 ‘콩콩팔팔’)은 친한 친구들끼리 농촌에서 작은 밭을 일구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유쾌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풀어낸 프로그램이다.

보통 예능 프로그램들은 기획 후 출연진을 섭외하기 마련이지만 ‘콩콩팔팔’은 섭외가 먼저였다. 연출을 맡은 나영석 PD는 앞선 제작발표회에서 “이광수 씨가 친한 친구들과 같이 프로그램해보고 싶다고 먼저 연락해왔다”며 “네 분과 함께 무엇을 하면 좋을까 오랜 기간 기획하다가 콘셉트를 농사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친한 친구들을 모아두니 케미가 돋보인다. 이광수와 도경수는 마치 봄과 제리처럼 쉴 틈 없이 서로 치고받고, 김기방은 옆에서 한마디씩 거들면서 자연스럽게 녹아든다. 예능 프로그램에 게스트가 아닌 고정 멤버로 처음 출연하는 김우빈은 조곤조곤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웃기다. 첫 회 시청률 3.2%로 출발한 ‘콩콩팔팔’은 매회 시청률을 상승세를 그리며 3회 시청률 4.4%를 기록했다.

지난 13일 종영한 JTBC ‘택배는 몽골몽

터져라 추억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에서는 웃음을, 좁은 텐트 안에서 공황 장애가 와서 힘들어하는 친구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장면에서는 잔잔한 감동을 안긴다.

“인생에 저런 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참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얼마나 친하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맨날 똑같아서 귀엽다”, “40대 아저씨들이 자기네들끼리 킥킥거리는 모습이 반인데도 재밌고 좋다” 등의 시청 평이 나왔다.

지난 26일 첫 방송을 시작한 tvN ‘어쩌다 사장’ 시즌3도 친한 친구 사이인 조인성과 차태현이 사장으로 합을 맞추는 프로그램이다. 둘이 시골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작했지만, 이번 시즌은 미국 서부에서 진행됐다.

친분 있는 출연진을 섭외해 진행하는 예능 프로그램들은 자연스러운 케미가 보장돼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안전한 선택이다. 하지만 익숙한 캐릭터, 익숙한 관계성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식상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 윤희성 기자



방탄소년단(BTS)

하이브 “BTS, 문제 업소 방문한적 없어” 루머 법적조치 착수”

최근 연예계를 강타한 배우 이선균과

가수 지드래곤과 마약 파동과 관련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까지 온라인 공간에서 루머로 거론되자 소속사 하이브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는 “계속되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악뮤, 멜론 일간 차트 53일 연속 1위…“올해 최장”



남매 듀오 악뮤(AKMU)가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 일간 차트에서 53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악뮤는 싱글 타이틀곡 ‘러브 리’로 지난달 5일 처음 1위에 오른 데 이어 전날까지 그 자리를 유지했다. 소속사는 “악뮤는 무려 53일간 해당 차트 정상을 지켰다”며 “올해 발매된 곡 중 최장 기록”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한 인터넷 매체와 유튜브 채널이 방탄소년단 일부 멤버가 이 유통업 소에 드나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하이브는 자료 수집 등 준비 단계를 마치는 대로 곧 고소장을 제출할

/ 신민경 기자

박은빈 주연 ‘무인도의 디바’ 시청률 3%대로 출발

배우 박은빈이 주연한 드라마 ‘무인도의 디바’가 3%대 시청률로 출발했다.

29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0분 tvN이 방송한 ‘무인도의 디바’ 시청률은 3.2%로 조사됐다.

첫 방송은 극 중 가상의 섬인 춘산도에서 자란 고교생 서목하(박은빈)가 돌아온 디비의 폭행에서 벗어나려 배를 타고 서울을 향하다가 뜻하지 않게 무인도에 갇히는 과정을 다뤘다.

세월이 흘러 목하가 무인도에 적응해 익숙하게 살아가는 장면과 함께 1회는 마무리됐다.

‘무인도의 디바’는 사고로 무인도에 갇힌 소녀 목하가 15년 만에 구조돼 어린 시절의 꿈인 가수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인 박은빈이 주연을



맡아 기대를 모았다.

같은 시간대 방송된 드라마 가운데는 MBC의 ‘연인’이 12.0%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JTBC의 ‘힘쎈여자 강남순’이 7.3%로 뒤를 이었다. SBS ‘7인의 탈출’은 5.6%를 기록했다.

/ 황은정 기자

美 테일러 스위프트, 억만장자 대열에

에라스 투어 티켓 판매 등 힘입어

인기 절정의 미국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34)가 억만장자(billionaire) 대열에 합류했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위프트는 지난 26일 전 세계 부호 순위를 산정하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렸다.

블룸버그는 스위프트의 총 순자산을 11억 달러(1조4천888억원)로 집계했다. CNN은 음악과 공연만으로 억만장자 대열에 합류한 것은 스위프트가 사실상 처음이라고 전했다.

비욘세와 리애나가 2017년과 2021년 먼저 억만장자에 올랐지만, 이들은 가수 활동뿐만 아니라 화장품 등의 사업을 통해 자산을 늘렸다.



스위프트의 억만장자 대열 합류는 올 3~8월 공연했던 ‘에라스 투어’가 크게 기여했다. 미국 20여개 도시에서 공연한 이 투어의 판매 수익만 세전으로 22억 달러(2조9천777억원)에 달한다. 2019년 이후 음반 판매 수익은 4억 달러, 유튜브 등 수익이 1억2천만 달러, 부동산 1억1억 달러, 저작권 수입이 8천만 달러 등으로 추정됐다.

/ 박소희 기자

경찰연합신문

www.koreapolicenews.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국회본관 175

편집인 최영민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민영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열어갑니다



국토교통부

TS 한국교통안전공단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하나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외화동전이 만드는 나나의 기적

하나금융그룹은 의료 사각지대 아동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은 모금함에 모인 세계 각국의 외화동전을 분류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합니다.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하나금융그룹